



한미 전투기 연합공중훈련

우리 공군 F-5, KF-16 전투기와 미 해병대 스텔스전투기 F-35B(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2대씩)가 24일 연합 공중훈련을 펼치고 있다. 한미 전투기들은 다음 달 8일까지 수원기지에서 기본전투기동, 근접항공지원(CAS), 항공차단(AI), 방어제공(DCA) 등 다양한 훈련을 함께한다. 공군 제공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선율로 전하는 위로

국군수도병원, 환자 쾌유 기원

국군수도병원이 아름다운 선율로 환자와 근무자들에게 격려·위로를 전했다.

수도병원은 24일 병원 통합로비에서 분당원드오케스트라와 함께 ‘한여름날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행사는 수도병원이 올해 대국민 응급진료를 시작해 1000여 명의 민간인 환자를 성공적으로 진료한 가운데 병원을 찾은 국민과 장병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병원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주에 나선 분당원드오케스트라 단원들은 50분간 ‘사랑의 콘서트(Concerto D’



국군수도병원이 24일 개최한 한여름날의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환자·장병들이 연주를 감상하고 있다.

부대 제공

amore)’ ‘한국 환상곡’ 등을 선보이며 환자·장병들에게 마음의 평온과 희망을 선사했다.

공연을 관람한 기형도 일병은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는데,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며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기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기획·총괄한 양של문(공군대령) 기획관리실장은 “멋진 공연을 펼친 오케스트라 단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군 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10년 발자취 돌아보며 발전방향 공유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창설 10주년 기념식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는 최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부대창설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업적과 발자취를 돌아보고, 함께 열어갈 30년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DIDC는 지난 10년간 전군의 컴퓨터 체계를 통합관리·운영하고, 24시간 365일 무중단 IT서비스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해왔다. 현재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국방 지능형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해 국방혁신 4.0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까지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SDDC) 및 지능형 플랫폼 운영 안정화를, 2025~2026년에 클라우드 서비스 범위 확대(PaaS·SaaS)를, 2027년부터는 자원·전장 체계 연동을 통한 지능형 플랫폼 운영 확대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체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우 센터장은 “AI 등 신기술의 발전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창설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성우(오른쪽 둘째) 센터장과 조재명(왼쪽 둘째) 육군사이버작전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과 국방 분야 디지털 대전환은 우리가 맞이한 절호의 기회로,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장관 축전 대독, 근무 유공자 표창 수여, 센터장 기념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근무 유공자로는 김혜진 소령 등 16명이 선정됐다. 조아미 기자

해군 출신 인플루언서가 전한 ‘강인한 정신력’

해군교육사, RNTC 대상 초빙강연

해군교육사령부는 25일 부대 종합교육관에서 학군부사관후보생 대상 정신전력 분야 초빙강연을 진행했다.

부사관학군단(RNTC) 대상 집중 정신전력교육인 ‘문무캠프’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강연에는 후보생들뿐 아니라 해군교육사 장병들까지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사로는 해군 출신 인플루언서로 활약하고 있는 김경백 씨가 나섰다. 김씨는 15년간 해군특전대원(UDT/SEAL)으로 복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김씨는 ‘군인의 정신력과 체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군인에게 필요한 강인한 정신력을 강조한 후 정신적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또한 정신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력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해양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



해군 출신 인플루언서 김경백 씨가 장병들에게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윤승호 하사

는 해군 장병과 장차 부사관이 될 후보생들에게 오늘 강연이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과학기술대 RNTC 소속 정서이 후보생은 “군인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선 정신력이 중요함을 느꼈다”며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임관하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을 단련해 필승해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원준 기자